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소식

5월 CEO와의 만남 제공 한국공학한림원 CEO 포럼(글로벌 텔레콤 인프라 동향) 참가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는 'CEO와의 만남'을 통해 일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국내 최고의 CEO와 만남으로써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생에게 성취수준을 높여주고, 동기와 열정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참가 결과

'글로벌 텔레콤 인프라 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124회 CEO 포럼은 고정식 전 특허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영기 삼성전자 부사장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 박재형(대구 오성중 3년,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군과 김이한(한성과학고 1년,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군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CEO, 초대 장관, 대학교수 등 사회저명인사들과 동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기술경영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얻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박재형, 김이한 군의 포럼 참가 소감은 본 지 13 페이지에 실려있습니다.)

향후 계획

보다 많은 교육생들이 리더들과 만날 수 있도록 'CEO와의 만남' 참여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6월 CEO와의 만남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제 | 한국공학한림원 CEO 포럼 : 중국 시장 경제에 대한 동향
| 참여일시 | 2011년 6월 27일(월) 18:00 ~ 21:00
| 참여방법 | 향후 교육원 공지를 통해 신청서 접수



6월 국내외 성장지원 FedEx Express와 Junior Achievement가 함께하는 국제무역창업(ITC)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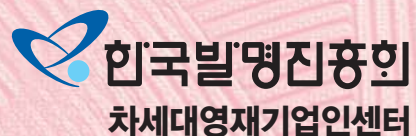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는 '국내외 성장지원'을 통해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에게 영재교육 관련정보 및 국내외 대회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 대회 취지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아이템 발굴을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시장 인식 확대와 기업가적 자질 향상
| 신청 자격 | 고등학교 재학생 2인 1팀
| 신청 기간 | 2011년 6월 21일까지(150명, 75개 팀 선착순 마감)
| 개최 일자 | 2011년 6월 25일(토) 13:00 ~ 18:00
| 개최 장소 | 서강대학교 K(김대건)관 202호
| 특 전 | Asia Pacific competition 참가, 비용 전액 지원*

※ 기타 대회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6월 상담 일정

6월 현재 경인지역에 대한 2기 교육생 기초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7~8월에는 방학을 맞이하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담 신청은 개별 안내하고 있으니, 메일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한국발명진흥회
Tel. 02-3459-2928 Fax. 02-3459-2758 Web. www.ip-gifted.org/cgye

이것이 IP세

[IP世]; IP세상, 세상을 세움

2011년 6월호 [통권 제6호]

진로 SECTION
커리어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을 도와주기

영재 SECTION
자기융호기술 개발하기

정서·심리 SECTION
긍정적 정서 · 부정적 정서

인지·발달 SECTION
인지적으로 바라본 발명의 효과

역량 SECTION
기업윤리



CONTENTS

- 03 진로 SECTION [부모 커리어 코칭(CAREER COACHING) 시리즈 5]
커리어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을 도와주기
- 04 영재 SECTION [가정에서의 영재자녀 양육 전략 3]
자기옹호기술 개발하기(Self-Advocacy Skill)
- 06 정서·심리 SECTION 긍정적 정서·부정적 정서
- 08 인지·발달 SECTION 인지적으로 바라본 발명의 효과 3편
- 10 역량 SECTION [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 5] 기업윤리
- 12 한 뼘 더 사랑하기
- 13 꿈을 향해 가는 길
- 14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소식
- 15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소식

훌륭한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요소는 두뇌가 아니다.

훌륭한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요소는 인격과 마음이며,
크고 풍부하고 훌륭한 기질,
그리고 진보적인 생각들이다.

-도스토예프스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

1821년 11월 11일, 러시아 모스크바 탄생.
주요작품 : 《지하실의 수기》,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

앞세 June 2011 Vol. 6

발행일 2011년 6월호(통권제6호) 주관기관 특허청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우) 135-980)

발행인/편집인 허진규 인쇄처 서울폴리컴 (02)783-0778 인쇄 2011년 6월 10일 발행 2011년 6월 10일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뉴스레터 앞세」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회의 견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로 section

부모 커리어코칭(CAREER COACHING) 시리즈 ⑤

커리어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을 도와주기

부모 커리어코칭의 마지막 단계는 자녀 스스로 선택한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이 끊임없이 출판되는 이유 중 하나는 독자들이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실행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며 미루거나 혹은 실행하다가 실패하여 나에게서는 안맞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한 커리어에 대하여 확신이 없거나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실행하지 않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회피하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런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부모님은 움직일 수 있는 힘, 즉 동기를 갖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동기를 갖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은 자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일입니다. 학생에게 그 꿈을 선택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어느 겨울 새벽 일찍 집을 나섰는데 자기 관심 분야와 관련된 회사건물에 불이 켜있고, 그 안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 곳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녀가 선택한 커리어의 미래가능성에 확신을 갖도록 하고, 관심 분야에서 미래에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게 함으로써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여 그래도 자녀가 망설인다면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시는 방법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통 동기가 행동을 하도록 자극한

다고 하지만 반대로 행동을 먼저 함으로써 동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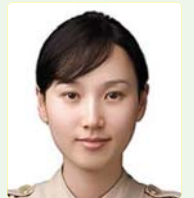
그밖에 학교나 캠프 등에서 실시되는 커리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는 것도 동기를 부여해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은 삶에서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의무 사이의 균형에 대해 자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삶의 큰 가르침 중 하나일 것입니다.

쥬라기공원 등 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한 카우아이 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했습니다. 1950년대 지독한 가난, 부모의 부재, 폭력적인 이웃,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으로 절망과 좌절로 가득찬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연구결과, 대부분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열악한 환경속에서 성장한 201명 중 72명은 별 문제없이 성장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 인생에서 그 한명의 역할을 부모님이 하신다면 더욱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 효 현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 교육학 박사
- 교육심리학 전공
- hhyoo@kipa.org
- 02-3459-2746



가정에서의 영재자녀 양육 전략 ③

자기옹호기술 개발하기 (Self-Advocacy Skill)

가정에서 영재학부모님께서 영재자녀들이 능력과 잠재성을 최대한으로 펼칠 수 있고 더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수 있는 영재자녀 양육 전략에 대해 몇 회에 걸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6월은 시기적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이라는 긴 공백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시기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영재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생각과 행동을 논리적으로 결정하고 변론할 수 있는 자기옹호기술(Self-Advocacy Skill)개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자기옹호란 자신의 흥미, 사고, 요구 및 권리에 대해 인식해 이를 절절히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옹호기술을 갖춘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강점과 요구를 이해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 책임을 정확히 인식해 타인과 적절히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재학생들이 이러한 자기옹호기술을 배우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대변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기옹호능력 신장의 가장 큰 롤 모델은 부모님이십니다. 특히 인지적 발달이 앞선 영재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해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재학생들은 특성상 다양한 요구와 재능으로 인해 문제해결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학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청소년기에 적절히 훈련되었을 때 개발되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재학생들이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자신 스스로를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기옹호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영재학생들은 높은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탐구하고 탐색하나 오히려 학습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요구를 정확히 기술하지 못하고 학습에 있어 자신에게 최상의 환경 및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재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증진하기 위해 누구와 무엇을 의논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자가 상담한 영재학생들 중 자신의 지적 호기심에 대한 열정과 진로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는 명확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업적인 면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의외로 실제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재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자신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자기옹호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영재성이나 특별한 재능에 대해 대화하십시오.** 이때 구체적인 재능과 영재성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에 앞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능력과 재능을 지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축복이면서 부담”인 영재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전 호에 논의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귀중히 여기고 동시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저자가 상담한 영재학생 중 몇몇은 이미 다양한 진단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즉,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영재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뛰어난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이러한 진단결과들이 자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시고 자녀에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담당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학교생활과 나아가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녀를 자신의 학습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유도하십시오.**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자녀들이 학업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자녀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을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부모님 주도적인 학습에서는 주체가 되어야 할 영재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계획이나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경우 적극적인 참여나 책임감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녀들에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 관찰과 대화를 통해 자녀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녀와 함께 고민해 해결방법을 선택하고 의사결정 하신다면 “엄마가 다 해

줬는데 뭐가 문제야”, “엄마가 정한거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내 탓 하지마세요” 라는 갈등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 것입니다. 즉, 자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안들을 인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의사 결정해 행동으로 옮길 때 최대의 효율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이 적절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성취에 대해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자녀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략을 소개드리면 **SMART : 영리하고(Smart), 측정가능하고(Measurable), 성취가능하고(Achievable), 실질적이며(Realistic), 시간적으로 적절한(Timely)**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를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재청소년들은 연령에 비해 사고가 복잡하고 깊으며 자신의 흥미나 관심분야에 대해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욕구가 비교적 높습니다. 이러한 영재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흥미, 요구 및 사고에 대해 당당하게 표현하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결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지닌 영재 청소년들이 인생을 자신 있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은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 교육심리, 영재창의성 전공
helee71@kipa.org / 02-3459-2745



긍정적 정서 · 부정적 정서

정서에는 크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중 어느 쪽의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면 좋으시겠지요. 그렇다면, 긍정적 정서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부정적 정서를 낮추면 긍정적 정서가 늘어날까요? 반대로, 긍정적 정서를 높이면 부정적 정서가 줄어들까요? 긍정적 정서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많은 질문들을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긍정적 정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서의 구조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정서는 크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두 요인으로 나뉘며 이들 두 정서는 두 개의 우세하고 상대적으로 상호독립적인 차원인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들 두 정서는 동시에 높을 수도 있고 동시에 낮을 수도 있는 상호독립적인 정서라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Kvaal & Patodia, 2000). 마치 한 쪽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다른 쪽 수도꼭지를 틀면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동시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며 차가운 물을 세게 틀었다고 해서 더운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요?

Watson(2002)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는 유쾌성, 확신성, 주의집중성의 정도를 반영합니다. 긍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황홀감, 환희감, 고양감, 행복감,

만족감, 안락감, 편안감, 이완감, 안도감, 애정감, 친밀감, 유대감, 귀여움, 사랑스러움, 신뢰감, 존경감, 자긍심, 자존감, 자신감, 수용감, 열광적 흥미, 재미감, 유쾌감, 심미감, 경외감 등을 정서를 보다 높게 자주 경험합니다. 반면에, 낮은 긍정적 정서는 슬픔과 무기력, 무의미감의 특징을 갖습니다. 부정적 정서는 분노감, 경멸, 메스꺼움, 죄의식, 공포, 신경증, 비참함, 우울함, 짜증, 좌절감, 의기소침함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혐오적 정서 상태가 포함되는 주관적인 고통과 불쾌한 일의 일반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부정적 정서가 낮다는 것은 긍정적 정서가 높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차분함, 평온함 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랫동안 긍정적 정서의 역할이 간과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동일한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위치한다는 가정 때문이었습니다(권석만, 2008). 따라서 부정적 정서를 낮추면 자동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정서는 작동기제나 적응적 기능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현재는 긍정적 정서가 인간의 적응과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Fredrickson(2001)은 긍정적 정서의 적응적 기능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녀의 이론에 의하면 두려움이나 공포,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

험할 때는, 우리는 세상을 터널 시야로 보게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위협에 처해 있거나 공격당한 상황일 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행동을 재빠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실제의 위협이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러한 부정적 정서들을 경험할 때는 그것들은 유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는 결눈 가리개가 거두어지고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 정서가 하는 것처럼 마음의 자세를 좁혀주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넓혀주는데 그러한 넓어진 마음 자세는 여러 이유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넓어질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나은 대처 방안들을 가질 수 있고, 친구 사귀는데도 좀 더 개방적이 되며,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신체적 활동들에도 좀 더 많이 관여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 정서가 적은 것이 평소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난관, 힘든 상황을 겪어나가야 할 때 긍정적 정서는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며, 긍정적 정서가 적거나 없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의 샤워기에서 작년 여름 어느 때부터인가 더운 물이 원활하게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작년 여름이 워낙 더웠기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운 물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샤워할 때 몹시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리하여 곧 고치긴 하였지만, 더운 물의 필요성은 날이 추워져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 난관, 역경, 고통, 힘든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당연한 한 부분입니다. 자녀분들이 겪는 입시에 대한 부담도 일종의 난관 또는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겪을 때 긍정적 정서의 보유고에 얼마나 많은 잔고가 비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힘든 상황을 건강하게 견디고 버티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최근 여기 저기서 수없이 벌어지는 자살사건들은 이 같은 긍정적 정서의 보유고에 긍정적 정서의 잔고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지 부정적 정서가 별로 없다는 것이 긍정적 정서가 높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긍정적 정서는 역경과 어려움,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의 힘/ 자아 강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키워주도록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겠습니다. 몇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민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심리학 박사 / 상담심리학 전공
ysm0714@kipa.org / 02-3459-2928



인지적으로 바라본 발명의 효과 3편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차세대영재기업인 아이들도 그들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인생의 한 고비 한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인지적으로 바라본 발명의 효과에 대한 글을 쓴지도 3달째가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답’ 혹은 ‘기존의 해결 방식’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문제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며 3달 동안의 여행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성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특히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중에 ‘창의성’에 관심 없는 분은 드물 겁니다. 그러나 왜 창의성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드물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란 지식재산이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사회입니다. 자연히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지적 산출물들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적 우수성을 발휘해서 풀어야 할 문제들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 특성의 함양과 비판적·논리적 사고능력 배양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고 많은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송유나, 최인수, 2008, 참조). 물론 창의성은 매우 다

면적이고 다양한 요소(인지, 성격, 환경)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매우 까다롭긴 하지만, 위와 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창의성을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창의성이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양산된 것까지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문제해결능력입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과 행동을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발명과 문제해결 - 창조적 조합

미국 애플사에서 개발·판매중인 아이폰(iPhone)은 여러모로 역설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그 누구도 아이폰이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폰은 현대 기술의 최전선을 대표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아이폰과 경쟁하는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휴대전화 단말기들이 아이폰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결코 뒤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폰은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세계 판매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아이폰은 현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대 사회의 특성을 매순간 규정지음으로써, 사회와 끊임없이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해야만 하는 수많은 문제해결들을 수월하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폰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가장

적합한 도구로 대중의 선택을 받은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폰의 기술적 특징으로 ‘최적화’를 지적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기술적 진보를 집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소비자들의 사생활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최적화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즉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창조하는 현대인의 생활, 그리고 그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창조적으로 조합’한 결과가 바로 아이폰인 것입니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발명이라는 문제해결 역시 핵심은 ‘창조적 조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명이란 단순히 세상에 없는 것, 즉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던가요.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기존의 많은 기능들을 조합하여 개선과 창조를 이루는 것이 발명입니다. 아이폰이 있기 전에 ‘원거리 통신’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원거리 통신의 지평을 창조적으로 넓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와 가치의 창조’라는 목적에 가장 알맞은 기능들이 적절히 선택되고 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싶습니다.

인지능력의 마태효과와 그것을 뛰어넘기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무시무시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

튼은 경제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이미 획득한 사람이 더 많은 경제력이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가리키면서 처음 이 구절을 인용하며 마태효과(Matthews effect)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맥락을 넘어 사람의 능력에도 마태효과라는 있습니다.

발명, 문제의 창의적 해결 역시 ‘무릇 있는 자’가 더 뛰어납니다. 뛰어난 전두엽 기능을 타고난 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전두엽 안에서 창조적으로 조합될 수 있는 확률이 빈약한 정보량을 가진 사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과 선순환은 이어져, 창조적으로 조합된 결과는 또 다른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빈한 자는 더욱 빈하게, 부한 자는 더욱 부해집니다.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성은 비단 타고난 사고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창의성의 발현에 성격, 동기, 그리고 사회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창의성을 정의했던 ‘지식’과 ‘사고력’ 못지않게 ‘개방적인 태도’, ‘끈기’ 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세대에 리더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괴로워할 겁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그리고 발명에 대한 지난 3개월간의 여정이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넘어진 후에 일어나 또다시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 주어야 할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민경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심리학 박사 / 인지 및 발달심리학 전공
i321@kipa.org / 02-3459-2743



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 ⑤

기업윤리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와 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이 작년 6월에 설립한 'The Giving Pledge'를 통해 미국 내 세계적 부자 57명이 자신의 절반 이상을 기부키로 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빌게이츠 회장은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에 깊이 감사하고 있지만, 그만큼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 라고 밝혔다. 자신이 사회로부터 얻은 재산을 다시금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기부운동에 참여한 이유라고 한다. 기관 홈페이지(<http://givingpledge.org>)에 들어가면 기부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참여한 이가 바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이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서약했다. 이제 26살인 그는 최소 재산은 69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기부하기로 서약한 날, "사람들은 기부를 하기위해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기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환원 또는 사회 공헌적 의지는 우리 차세대영재기업인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1월호에 제시된 차세대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 중 기업윤리를 기억하십니까? 기업윤리는 사회 환원 또는 사회 공헌적 의지를 포함하는 역량입니다. 더불어, 윤리경영의식도 갖추어야 하는데, 윤리경영의식이란 윤리경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과 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사회공헌의지와 윤리경영의

식의 구성요소는 다음에 제시되는 표와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자녀에게 기업윤리의식정도를 알고 싶다면, 나중에 기업을 운영할 때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물어보십시오. 표에 있는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보통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음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규범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가?', 둘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 셋째,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가?' 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기업윤리의식을 키워보고 싶으시다면, 첫째, 자녀의 정직함을 우선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하시고, 부모님과 대화할 때에도 항상 정직함과 진실성이 나타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봉사활동에 참여시키시기 바랍니다. 최근학교에서 시행하는 봉사활동은 진학 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윤리의식은 인간의 내면적인 고찰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윤리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윤리의 하위역량 및 구성요소

하위역량	구성요소	개 념
사회공헌의지	상생 추구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면서 더불어 성장하고자 하는 의식
	사회적 가치실현의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며 사회로부터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윤리경영의식	공정성 추구	조직의 근간이 되는 기본과 원칙을 세우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세
	건전한 기업문화 실현의지	조직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서 경쟁하고자 하는 의지



이 윤 조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직업교육, 환경교육 전공
yo3283@kipa.org/02-3459-2744



♥ 한 뼘 더 사랑하기 ♥

CCE 1기들이여, 지나온 1년같이 자신을 믿어라~

오늘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그동안 교육원의 공지사항은 대부분 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했는데, 우편으로 배달된 편지를 받게 되니,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까지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다.

편지는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교육원에서 현재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성실히 작성되어 있었다. 아직 창현이는 중3이라 대입을 앞 둔 고등학생들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속에서 언제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니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고 묻기가 힘든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기 일쑤인 와중에 받은 편지라 더욱 반가웠다.

IP영재기업인교육원을 다닌지도 2년째 접어들면서, 요즘의 창현이는 조금 더 생각의 물꼬가 트인 것 같다. 한동안 CCE 1기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이 너무도 대견하였다. 그러나 중3이 되어서 진로를 고민하고 진학준비를 하다 보니 학교 내신 성적과의 관계에서 고민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 발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 판단하여 잘 해주리라고 믿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창현이의 앞날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리라고 믿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알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할 경우 그 일이 잘하는 일이 되고 그 잘 하는 일이 경쟁력이 생겨 자신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러나 이 사실이 단기적인 결과와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공부를 놓아야 하는 순간도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교육원의 편지 내용 중에도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미래의 비전에 관한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경우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열정을 가지는 순간, 과정보다 즐겁고 결과도 좋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내용으로 학창시절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 특별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원을 다닌다는 자부심과 열정이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가지고 오리라 믿는다. 교육원에 대한 믿음과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각 가정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백 소 영 님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1기
(부산 하단중학교 3학년)
고창현 학생 어머니



수기 공모 및 의견 수렴

〈앞세〉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앞세〉에 대한 의견이나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환영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기 분량 A4용지 한 페이지
- 접수 처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최민경 전문위원

Tel. 02)3459-2743, E-mail. i321@kipa.org, web. www.ip-gifted.org/cgye



지난 5월 30일, '글로벌 텔레콤 인프라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한 CEO 포럼에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 박재형(대구오성중학교 3학년,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2기)군과 김이한(한성과학고등학교 1학년,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1기)군이 참가하고, 소감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 감동과 다짐을 앞에서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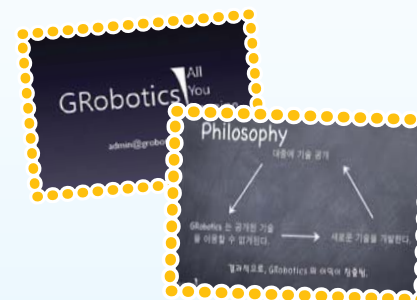
박재형

KAIST IP영재기업인
교육원 2기 (대구 오성중학교 3학년)

처음 행사에 참석했을 때, 나는 포럼에 계신 분들의 명성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기형 박사님과 고정식 전 특허청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의 사업과 현황, 그리고 비전에 대해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리셉션 후 본 행사의 진행을 맡으신 고정식 전 특허청장님께서는 우리를 참석자분들께 소개하시고, 내게 G-Robotics에 대해 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기업가분들께 나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고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의 관심을 받으며 열심히 설명해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었다. 특별히 이번 포럼에서 '현재 사회적 이익도 보장하는 G-robotics의 미래경영 방향'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했는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김성권교수님께서 많은 조언을 주셨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연구하려는 분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아 더욱 도전의식이 생겼다. 지금은 아직 미약하지만, 꼭 참석하신 분들처럼 나 또한 훌륭한 기업을 키워내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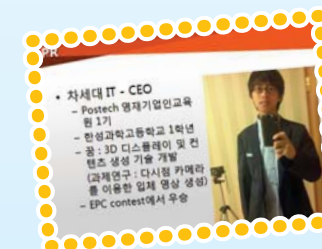


김이한

POSTECH IP영재기업
인교육원 1기 (서울 한성과학고 1학년)

긴장과 설렘, 기대에 찬 마음으로 CEO포럼 장으로 갔다. 김기형 과학기술부 초대 장관님을 뵈 수 있었고, 나에게 IT업계에 있어 혁신을 일으킬 만한 IFR(Ideal Final Result, 이상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 역시 초대 장관을 지내신 분답게 생각이 깊다고 느꼈다.

CEO Forum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박상일 대표이사님께서 다른 교수님들에게 내 연구 분야를 설명해주셔서 공감을 샀던 일이다. 내가 완성하려는 3D 체계는 다른 체계와는 차별화되어 조금은 난해한 분야다. 그래서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그 때문에 과제연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으니 포기할 생각이 사라졌다.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심도 있는 나만의 연구를 진행하기로 다짐했다.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은 인문소양을 바탕으로 미래통찰력, 지식재산능력,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IP-CEO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역량 신장을 위해 온·오프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지식재산권, 미래인문학, 기업가정신, 미래기술/지식융합(이상 1년차 기본과정), 미래기술2/기술융합, 융합지식경영, 창조인문학, 기업사례연구(이상 2년차 심화과정)로 구성되어 있다. 오프라인교육은 온라인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기술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및 아이디어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창조성과 협력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IP-CEO협업모형을 따라 진행한다.

IP-CEO협업모형 : Issue-Posting(분야별 전문가 교육을 통한 문제제기), Collaboration(조별 토의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 Elaboration(발표, 전문가 평가 및 피드백), Outlying(사후관리를 통한 실적화)

교육과정 소개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정규 2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의 정규과정 이후 전문과정으로 관리한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은 학기 중에는 약 8~10주 간격(토요일요일이름)으로 1박 2일 간, 방학 중에는 약 4박 5일 간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교육에서 신장한 지적 역량을 적용·심화시킨다.

기본과정(1년차)

기본과정 온라인교과는 지식재산권, 미래인문학, 기업가정신, 미래기술/지식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문소양과 미래기술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지식재산권 창출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기능을 학습하게 된다(특허출원, 비즈니스모형 개발).

심화과정(2년차)

심화과정 온라인교과는 미래기술2/기술융합, 융합지식경영, 창조인문학, 기업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과정에서 함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관심분야에 따른 고도화된 특화를 산출하고 실제적인 IP기반 기술창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문과정(3년차)

Youtube, TED.com 등의 강연 자료와 미래기술 관련 저널의 칼럼, 논문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멘토 교육, 온라인 활동(SNS, 블로그, 커뮤니티 활동)등을 수행한다. 방학을 이용한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협업 및 멘토교육, 벤처창업지원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IP-CEO로서의 전문성이 반영된 원천특허의 출원 및 등록, 기업가로서의 자질 뿐 아니라 실제 기업가적 역량을 심화시킨다.

교육 현황

▶온라인교육

과정	개강일시	교과명	차시	과정	개강일시	교과명	차시
기본과정	6/13	지식재산권	8	기본과정	6/13	기업사례연구	3
		미래기술(중등)	4			창조인문학	4
		지식융합(고등)	4				
	6/27	지식재산권	9		6/27	융합지식경영	6
		미래인문학	5			미래기술(중등)	5
						기술융합(고등)	5,6

▶온라인토론 : 6월 6일 마감

▶오프라인교육

지난소식

5월 28~29일 대전 KAIST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캠프를 개최하였다. 약 30여명의 학부모와 총 16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기본과정에서는 '스마트 월드(Smart World)'라는 주제로 KAIST 이민화 교수, 관동대학교 정지훈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 Elevator Pitch Contest, 학생교류, 학부모간담회 등이 진행되었다. 심화

과정에서는 김호중 대표(트리즈포트), 김기정 이사(트리즈협회), 이경원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준용 대표(크리코리아) 등 국내 트리즈(TRIZ) 관련 최고전문가들을 초청해 TRIZ 관련 교육 및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오프라인교육을 통해 심화과정 학생 59명이 트리즈 제 1수준 인증을 취득하였다.

다음일정 : 7월 9~10일(예정)



본 교육원은 '미래 기술을 주도하는 창조적 영재기업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사업제안 과정(기본)과 사업예비 과정(심화)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 과정은 'Dream the future(미래기술 선견)', 'Discover the future(기술 타당성 탐색)', 'Develop the future(사업 타당성 탐색)', 'Deliver the future(사업 제안)'의 4개의 테마로 운영됩니다. 현재 1기 교육생들은 'Develop the future' 테마를, 2기 교육생들은 'Dream the future' 테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6월 온라인 교육

1기 사업환경 분석 : 자신의 관심분야를 둘러싸고 있는 경쟁자, 대체자 등의 미시환경을 살펴보고 분석한다.
기업가 정신 기르기 : 관심분야의 롤모델(Role model) 혹은 CEO 대상 인터뷰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2기 미래기술 찾기 : 미래기술 유망 분야인 6T(IT, BT, NT, ST, ET, CT)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현재 및 미래 기술 동향을 살펴본다.
기업가 정신 살펴보기 : 온라인 독서토론을 통해 기업가에게 있어 비전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추천 오픈 특



오픈 특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별 추천 도서를 읽고 관련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오픈 특 주제

[스무 살에 알았다더라면 좋았을 것들]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을 던지고 있으며, [청년 CEO를 꿈꿔라]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창업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혹은 창업을 하기 위해 현재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키워야 할 역량들은 무엇일까요?

윤정원(1기)

〈스무 살에 알았다더라면 좋았을 것들〉과 〈청년 CEO를 꿈꿔라〉를 모두 읽은 후 가장 내가 앞으로 가져야 할 역량이라고 느낀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회에 도전하고, 실패로부터 배워나가는 용기와 지혜'였다. 〈청년 CEO를 꿈꿔라〉를 보면 모든 대표들이 각기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각각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CEO들이 그 가르침들을 알게 된 과정은 모두 실패와 배움의 과정 속에서였다. 〈스무 살에 알았다더라면 좋았을 것들〉의 '복권에 당첨되려면 우선 복권을 사라', 5장-실리콘밸리의 비밀과도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된다. 나도 '저번에 비슷하게 해서 실패했었잖아'나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와 같은 두려운 마음을 접고 대담하게 진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아파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겪은 후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의 배움과는 또 다른 나만의 생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역량은 레인디 김현진대표의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알라'는 부분과 CEO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입모델이라면 과감히 바꾸는 점, 또 스무 살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의 6장, 10장의 내용에서 말하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아는 역량'이다. 책을 읽으면 능력과 열정과 시장의 수요가 만나는 지점을 찾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한, 자신에게 꼭 맞는 역할을 찾기 위해 많은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세상이 보내는 메시지들을 선별하며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선을 긋는 그런 마음가짐, 역량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프라인 교육 일정

6월 중으로 정확한 오프라인 교육 일정이 공지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